

데스크 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부국장

“#국가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國家安危在興亡)/ 의기 남아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意氣男兒何待死)…”
“나주 출신 죽봉 김태원(1870~1908)의 병장이 아우인 청봉 율에게 1908년 2월에 보낸 시 ‘여사제심서’(與舍弟心書)의 일부다. 형제는 나란히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1907년 10월,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한 수연산 석수암에서 결성된 의병 연합부대 ‘호남청의회맹소’(湖南靑義會盟所)에 참가했다.
형제는 담양 무동촌(담양군 남면 무동리)을 비롯해 함평·영광·장성 등지에서 일본 군경과 싸웠다. 사람들은 형님 부대를 ‘참봉진’(參奉陳), 아우 부대를 ‘박사진’(博士陳)이라 불렀다. 매천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죽봉은) 기발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많은 일병(日兵)을 살해했다”고 기록했다. 형제는 1908년 4월 광주 어등산에서 순국했다. 광주시 서구 농성광장에는 화승총을 든 김태원 의병

호남 의병은 하나다!

장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의열공 학봉(鶴峯) 고인후 선생 14대 종손인 고영준(80) 씨의 창평 유천리 종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로 종가를 찾는 이들은 의병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를 비롯해 의병 후손들인데, 도을 김용욱 선생과 이낙연 총리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학봉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제봉 고경명 선생의 둘째 아들로, 금산전투에서 부친과 함께 순절했다. 장남인 준봉 고종후 역시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절했다.

기념 공간 왜 따로따로인가

그리고 300여 년이 흐른 구한말에 학봉가 11대 종손인 녹천(鹿川) 고광순 선생이 의병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 또한 같은 시기 일제에 대항해 총칼을 드는 대신 교육에서 독립의 빛을 찾으려 했던 애국 계몽 사상이 춘강(春嶺) 고정주 선생까지 더하면 가문의 역사에 살아 있는 한편의 대하소설이자 독립운동사라 할 수 있겠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병 관련 기념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전남도 역시 ‘남도의병 역사공

원’ 기본계획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남에서 일어났던 의병을 ‘광주 의병’과 ‘전남 의병’과 같이 지역을 기준으로 쪼개 나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 지역의 의병을 빼놓고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구한말 호남 의병 또한 참여 인원이나 전투 횟수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다. 1909년의 경우 호남 의병 수는 전국의 60.1%, 교전 횟수는 47.3%나 되었다.

의병부대의 활동 지역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지 않았다. 죽봉 김태원 의병장이 이끄는 부대의 경우 어등산뿐만 아니라 영광과 법성포, 함평, 장성 등 지역을 넘나들며 싸웠다. ‘호남청의회맹소’에 참여하지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소단위 독립부대로 나누고 합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의병들은 ‘둔한 화승총’과 ‘무딘 칼날’로 현대식 소총과 대포를 갖춘 일본 군경을 상대하기 위해 게릴라 전술을 폈다. 녹천 부대 가 지리산 연곡사에 아지트를 마련한 것도 장기전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자 ‘호남 의병 기념관’과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호남의병’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리는 사업에 먼저 나서야 한

다. 청사(靑史)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의병장과 무명 의병들을 발굴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순 ‘쌍산의소’(雙山義所)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산재한 호남 의병 전적지를 역사 교육의 대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생생한 역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 손 마주 잡아야

현제 고영준 씨는 타 지역 의병 후손이나 연구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한다. 그래서 경남 하동에서도 녹천부대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구한말 의병은 녹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흥분도 부대에 백두산 포수가 있었던 것처럼 녹천의진에 지리산 포수 출신인 박매지가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토사학자인 정재상(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 씨가 지난 2017년 문건을 발굴해 밝힌 사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병관련 기념관이나 공원은 한 곳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호남 의병’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호남 의병’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

/song@kwangju.co.kr

社說

‘국회 정상화’ 견어찬 한국당 무책임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진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국당이 또다시 저버린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 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 토론회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열린 한국당의 의원 총회

에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반발, 추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합의안은 80일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끝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 절충한 결과였다. 하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정상적인 국회는 또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추경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 역시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추경에 반영을 건의한 24건의 현안 사업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광주형 일자리 지원 법안, 5·18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강경 일변도 전략으로 자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마저 거부한 것은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이르러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시 국회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6·25 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운전 여전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25일 새벽 광주에서는 면허취소 3건과 면허정지 4건 등 총 7건이 적발됐다. 전남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87%로 운전한 40대 1명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총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새벽 0시 41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 1C 앞 음주단속 현장에선 운전자 C씨가 차를 세우고 500m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C씨는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전인 24일만 해도 훈방 대상이었다.

25일 자정부터 적용돼 ‘6·25 법’이라고도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낮아졌

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 면허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에서 0.08%로 조정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따라서 숙취 운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방법)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두 병을 마실 경우 일곱 시간이 지나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041%로 단속 기준을 넘는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딱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아침이면 카톡 소리에 눈을 뜬다. 지구 반대편에서 보내온 손녀 사진이 도착한 것이다. 이어서 영상 통화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서울에 사는 손자보다 외국에 있는 손녀가 더 가까이 있는 듯하다. 채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과 연결돼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임을 실감한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진화와 발전이 일상의 풍경까지 바뀌고 있다. 명절이면 친척끼리 모여 덕담을 하거나 훗날이로 시간을 보내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신한다. 세 살짜리 손자도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좋아한다.

기 고



조지현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자가 근무 중인 학과는 복지의 대상자였던(또는 여전히 복지의 대상자인) 학생의 비율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 학생들에게 사회 복지 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그동안 본인 이 받아왔던 여러 가지 도움을, 이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사회 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보육 시설에서 자란 학생이 사회 복지사가 되어 보육 시설에서 일을 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이 사회 복지사가 되어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하거나, 결혼 이민자 자신 또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사회 복지사가 되어 다문화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식이다. 현장에 계시는 사회 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다고

선한 영향력의 대물림

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르신들의 맥을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 중에는 대상자 어르신을 위한 업무가 아닌 가족을 위한 일이나 집안 대청소, 감장 김치 담그기, 제사 음식 준비 등 원래 요양 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요구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당신은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 오면 되니 그만 뒤라”라고 하는 통에 속앓이를 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반대로 돌봄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소심한(?)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받았던 후임병이 본인이 선임병이 되었을 때 후임병에게 또 다른 가혹 행위를 한다거나, 심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 시집살이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선임병으로서 또는 시어머니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험한 것이 그러한 모습인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는 더 심한 세

월도 견뎌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위계질서가 강한 직종일수록 직장에서의 선후배끼리의 사이에서 또 비슷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 역시 대물림 된다고 한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가 전혀 없는 사람과 비교해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3배 가까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민법상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적인 대물림을 끊어 버려야 하고 끊을 수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나의 상처를 그대로 혹은 덧붙여 돌려줄 것인지 내 선에서 끊어버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어디서든 본전 생각이 나기 마련이라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지만 나부터 먼저 부정적인 대물림을 끊고 선순환의 시작이 되면 어떨까?

광주·전남 출신 재경 대학생 기숙사인

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다른 정보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기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확증 편향’의 문제는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단독방을 통해 ‘가더라 통신’을 달고 사는 디지털 소외 계층 노인들이 넘쳐나는 것도 그 한 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고교 휴대폰 사용 제한 완화 권고 이후 초등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에 빠진 학생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이에 걸맞게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했다고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아닌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공간을 계획적으로 제한하도록 지도하는 학교 교육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다.

남도학숙에는 졸업생 중 뜻이 맞는 몇몇이 모여 만든 ‘남지원’(南枝園)이라는 장학회가 있다. 이 장학회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긴 시간을 들여 졸업 후 사회인이 되면 장학회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장학회의 이사는 장학금을 기부해야 하고 자신처럼 받은 사랑을 후배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뽑는다. 즉,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배들은 장학회의 이사로서 또 다른 후배들을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아이돌 그룹이 아닌 BTS는 자신들의 노래와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널리 발휘하고 있다. BTS는 노래 가사 뿐 아니라 각종 인터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이를 보고 들은 BTS 팬클럽인 아미(ARMY)는 BTS의 메시지에 큰 위로를 받고 BTS로부터 받은 좋은 에너지를 다시 세상에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갑질을 당한 경우에도 우리를 위로해준 고마운 누군가가 우리 곁에는 분명히 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위로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녀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전해보면 어떨까?

無 等 鼓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8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한편 고국의 가족에 돈을 부치기도 한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효과는 86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같은 통계로 알 수 있다. 경제계에 서는 이들로 인한 경제효과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게 없어 임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경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이들(55만여 명)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700억 원을 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

금’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노동 원칙이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협약 111호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상당 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D(difficult·dangerous·dirty)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국

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꺼리는 생산직이나 노동직 등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 데 최저임금을 차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K-POP의 인기로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다. 한국에 기대를 걸고 일자리를 찾아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짓밟아서야 되겠는가.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세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